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2018년 12월 21일 | 선임조사역(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인구 33.023백만 명 (2018 ^e) 	정치체제 군주제 (정교일치 국왕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7,698.79억 달러 (2018 ^e) 	1인당GDP 23,186.74달러 (2018 ^e) 	통화단위 Saudi Riyal (SR) 	환율(U\$기준) 3.75 (고정환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7%에 달하는 2,662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4.2%에 해당하는 8.0조m³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임. 또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유향정책의 시행으로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나 사실상의 군주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왕실 내 숙청을 단행하여 왕실 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역내 숙적인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코자 예멘 내전 개입, 카타르 단교 사태 주도 등 역내국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확대하여 역내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음.

□ 아울러 2018년 10월 2일 왕실을 비판해온 자국 언론인 Jamal Khashoggi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6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문화협력협정(1975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75년), 항공협정(1984년),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1990년), 투자협력협정(2002년), 투자보호협정(2003년),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8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12년), 국방협력협정(2014년)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1-10	주요 품목
수 출	5,643,867	5,147,056	3,325,392	섬유류, 자동차, 철강
수 입	15,741,673	19,590,480	21,854,151	원유, 유류제품, 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46건, 4,809,650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3.7	4.1	1.7	-0.9	2.2
소비자물가상승률	2.2	1.3	2.0	-0.9	2.6
재정수지/GDP	-3.5	-15.8	-17.2	-9.3	-4.6

자료: IMF, EU

감산 합의 연장과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선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2018년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추정

-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의 지속이 원유수출액 감소와 그로 인한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한 결과,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이상 하락한 1.7%에 그쳤음.
- 원유수출에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수출액 감소는 재정수지 적자 가중, 상품수지 악화 및 그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았음.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건설 부문의 주요 대형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 등은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동반 위축을 초래함.
 -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은 2015년 35.1%에서 2016년 30.9%, 2017년 27.9%, 2018년 26.6%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저유가 상황을 타파코자 2016년 11월 30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향후 6개월 간 일일평균 원유 총생산량을 10월 대비 약 120만 배럴 감축한 3,250만 배럴로 정하는 감산에 합의하였음. 이어 12월 10일 러시아를 포함한 OPEC 비회원 산유국들¹⁾도 2017년 1월 1일부터 향후 6개월 간의 일일 평균 원유 총생산량을 55.8만 배럴 줄이는 감산에 합의하였음.
 - OPEC Plus 합의로 불리는 동 감산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1,005.8만 배럴로 종전 대비 48.6만 배럴 감소함.
- 그러나 이후 감산 합의가 2017년 말까지 연장되었음에도 국제유가²⁾는 배럴당 40달러대 중반에서 60달러대 초반까지 등락을 거듭하는 등 당초 산유국들이 기대한 60달러대 중반에 미달하였음. 아울러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3년 연속 재정지출 감소)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17년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음. 이에 산유국들은 2017년 11월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감산을 2018년 말까지 재연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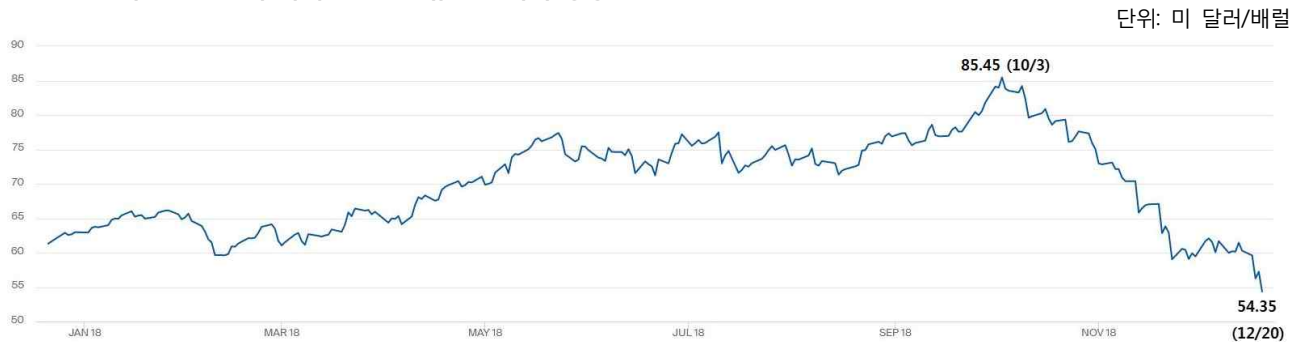
1)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적도기니, 수단, 남수단, 브루나이.

2) 본문에서 국제유가는 영국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임.

국내경제

- 이후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OPEC Plus는 지난 6월 22일 일일평균 100만 배럴 증산(7월 1일부터 적용)에 합의하였음에도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이란산 원유의 수출에 대한 제재 포함) 복원 발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상승세를 지속한 데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18년 2%대 초반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발표 후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반영한 산유량 증대가 이루어지고,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에 대하여 6개월 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내년도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국제유가는 10월 이후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의 하락세를 거듭하였음.
- 영국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의 북해산 브렌트유 2019년 2월 인도분 배럴당 선물가격은 지난 10월 3일 85.45달러로 최근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을 거듭하여 11월 23일 59.04달러로 30.9% 급락하였으며, 이후 12월 7일 OPEC Plus의 감산 합의 타결에 12월 7일 61.67달러로 반등하였으나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우세해지며 12월 20일 54.35달러로 급락하였음.

<그림 1> 최근 1년 간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 동향



자료: ICE (조회일자: 2018.12.21.)

국제유가 하락세 저지를 위한 감산과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산 사이에서 정책의 혼선을 거듭하다 12월 7일 OPEC Plus 감산 합의 타결

- Reuter와 Bloomberg 등 외신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18년 11월 중 일일평균 산유량은 최소 1,110만 배럴, 최대 1,130만 배럴로 추정됨. 이는 10월 대비 약 50만 배럴, 연초대비 약 100만 배럴 더 많은 규모임.
- 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자국의 중간선거와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복원을 앞두고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OPEC 회원국들에게 증산을 압박하였음.³⁾ 아울러 10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반정부 언론인 Jamal Kashoggi 살해사건의 배후로 물리자, 미국의 지지를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0월 15일 '시장의 충격 흡수자'를 자처하며 증산을 발표하여 11월 산유량이 증가하였음.

3) 미국 정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로 감소하는 원유 공급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국내경제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에너지광물부의 Khalid al-Falih 장관은 11월 11일 공급 초과를 이유로 12월부터 일일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은 국제유가 하락세 저지를 위한 감산과 미국의 요구 및 정치적 필요에 따른 증산 사이에서 최근 혼선을 거듭해 왔음.
- 12월 6~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OPEC Plus 회의에서 OPEC 회원 15개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OPEC 비회원 10개국들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2018년 대비 일일평균 12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하였음.
- 감산량의 분담은 OPEC 회원국 80만 배럴, 비회원국 40만 배럴(그중 20만 배럴은 러시아)로 합의되었음. 한편,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을 이유로 감산 적용의 면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했으나 러시아의 중재로 결국 이란은 적용을 면제받았음. 아울러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도 국내 정세의 혼란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을 이유로 감산 적용을 면제받았음.
- 앞서 OPEC 산하 자문기구인 OPEC 경제위원회는 산유국들이 2019년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을 지난 10월 수준보다 130만 배럴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러시아의 Vladimir Putin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OPEC Plus 합의를 2019년 말까지 연장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어 12월 5일 빈에서 열린 OPEC Plus 국가들의 장관급 공동점검위원회(JMMC)는 참여국들에 향후 6개월 간의 산유량 감축을 권고하였음.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의 내년도 전체 감산량을 일일 100만 배럴로 제안하며 OPEC 비회원국 중 산유량 비중이 최대인 러시아가 그중 25만~30만 배럴을 맡아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15만 배럴만 감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감산 합의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 추진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및 그로 인한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각종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여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19년에도 2%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Capital Economics는 2018년 하반기 중의 증산이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현저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국제유가가 감산으로 상승한다 해도 유가상승 폭이 원유수출량 감소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여 원유수출 수입이 2018년 대비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그로 인한 비석유 부문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였음.⁴⁾
- Capital Economics에 의하면 감산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유가상승을 견인하겠으나 세계경기 둔화 조짐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세 저하 전망에 따라 유가상승 추세가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브렌트유 기준 원유가격은 2019년 말에는 배럴당 60달러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4) 자료: Capital Economics, MENA Economics Update, "OPEC deal means weaker growth in the Gulf in 2019", 7th December 2018.

국내경제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국방비 지출 등의 여파로 5년 연속 재정수지 적자 기록 추정

- 재정수지는 2014년에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함에 따라 GDP 대비 -3.5%로 적자 전환되었음. 2015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 산업다각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5.8%로 급등하였음.
- 이 같은 상황은 2016년에도 계속되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전년대비 15.6% 축소하였음에도 석유 부문의 세수 감소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6년 만의 최고이자 G20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17.2%로 더욱 증가하였음.
- 다만, 2017년에는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영 석유기업의 수익성 일부 향상, 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spending) 축소 등의 노력으로 동 비중이 -9.3%로 개선되었음.
- 석유 부문 수입은 원유와 정유의 2017년 평균 수출가격이 배럴당 56달러에 달하면서 전년대비 36% 증가(재정수입의 63.2% 점유), 비석유 부문 수입 담배와 탄산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국부펀드 투자수익률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37% 증가(재정수입의 36.8% 점유)한 것으로 집계됨.
-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등 비석유 부문 중심의 세수 증대 노력,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의 수익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대 중반으로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Fiscal Balance Program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를 통한 자본지출 축소(200억 달러 이상 감축 계획),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석유 부문으로의 경제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유가가 현저한 상승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8년 1월 재정균형 달성 목표시한을 3년 뒤인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음.
- IMF는 지난 11월 발간한 중동 지역의 Regional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2019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균형(수지가 0을 기록하는 상황) 달성을 위한 배럴당 연평균 국제유가 수준을 각각 73.32달러 및 52.59달러로 전망하였음. OPEC Plus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에도 재정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2월 재정균형계획(Fiscal Balance Program) 발표 이후 재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세제 개편을 통한 비석유 부문 재정수입 확대, 공공요금 가격체계 개편, 교통 인프라 사용료 신설⁵⁾ 등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유도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한편,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의 충당을 위해 2016년부터 국채 및 이슬람채권을 매년 발행함에 따른 채권이자 지급 및 만기도래시 채권원금 상환 부담 증가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5) 12월 6일자 Arabian Business지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운송부의 Nabil al-Amoudi 장관은 사우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0년까지 수도 리야드의 6개 도로에 대하여 도로 통행료(road toll)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내경제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 도입

-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들은 2016년 5월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5%의 공통세율⁶⁾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현재까지 통합협정 비준 및 관련 법령 제정을 마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2개국만이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나, 다른 회원국들도 2019년 말까지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연 매출 375천 리알(10만 달러) 이상의 민간기업'이며, 연 매출 185천 리알(5만 달러) 이상의 민간기업도 '자발적 납부'가 가능함. 한편, 부가세 미납 또는 축소납부 기업에게는 각각 납부세액의 100%,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됨.
- 일반과세(5%)의 주요 대상은 식음료, 국내운송, 개인 의료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및 임대(호텔 포함), 주거용 부동산 매매, 사립학교 학비, 석유·가스 제품의 국내 판매, 순도 99% 이하의 금·은·백금의 매매, 유무선 통신 및 전자서비스, 은행 수수료 및 보험상품 등임.
- IMF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분이 GDP 대비 1.8~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세율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고 일괄과세로 가격왜곡 효과가 적어 기업과 개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은 2017년 6월 11일부터 "국민 건강에 유해한 식음료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전격 시행하여, 담배제품과 에너지음료에 대해 소비자가의 100%를, 탄산음료에 대해 소비자가의 5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흡연을 저하와 당뇨병 및 비만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개별소비세 부과는 서민들과 제3국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도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 개시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Fiscal Balance Program 2020에 의거, 2017년 7월 1일부로 외국인 노동자 부양가족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음.
- 부양가족세의 경우는 거주증(Iqama) 갱신 또는 출국/재입국비자(Exit/Re-entry Visa) 갱신시 일괄 징수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은 2017년 7월 약 1,100만 명의 외국인이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양가족 수는 약 22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6) 이는 산유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자 여타 중동 국가 및 글로벌 평균(11.5%)보다도 낮은 수준임.

국내경제

<표 1>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용 부과 내역

구 분	부양가족세		고용부담금		
	시행일	부양가족 1인당 부과액	시행일	외국인 노동자 1인당 부과액	
				사우디인 노동자가 더 많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경우
2017년	7월 1일	100리얄	1월 1일	-	-
2018년		200리얄		300리얄	400리얄
2019년		300리얄		500리얄	600리얄
2020년		400리얄		700리얄	800리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용 부과로 2018년 240억 리얄, 2019년 440억 리얄, 2020년 650억 리얄의 추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용 부과는 궁극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동 비용의 부담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자국민이 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⁷⁾

중저소득층 가계 지원 프로그램(Citizen's Account) 운영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연료 및 에너지 가격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따른 중저소득층 사우디 가정의 생활비 증가를 보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중저소득층 가계 지원 프로그램(Citizen's Account)을 운영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사우디인 가정의 총 소득, 가족수 및 가족 구성원 연령에 따라 가계지원 보조금을 차등하여 현금으로 매월 지원함.
- 지원규모는 가구당 매월 최저 300리얄이며, 지원기간은 5년이되 3개월마다 지원금 수령 자격 여부를 재평가함. 지원대상은 사우디 영주권 소지자로 구금시설에 수감되지 않은 사우디인임. 한편, 사우디인 아내와 결혼한 비사우디인 남편, 비사우디인 아내와 결혼한 사우디인 남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017년 12월 21일 1차 가계지원금 20억 리얄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10일에 가계지원금을 지급함. 2018년 도 정부 예산의 경우 가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300억 리얄(80억 달러)을 배정하였음.
- 1차 지원금은 가계지원 프로그램 등록자(370만 가구, 약 1,300만 명) 중 자격요건을 갖춘 약 1,060만 명에 지급되어 총 70만 가정이 평균 1,000리얄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지원대상 가정의 절반이 월평균 최대 938리얄을 수령하였음.⁸⁾

7)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양가족만 귀국시킬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 소비액이 송금형태로 지출되고, 부양가족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8)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4명(18세 이상 2명, 18세 이하 2명)이 있는 월가계 수입 15,000리얄의 사우디인 가정은 월 938리얄을 수령하였음. 동 가정은 월간 가계수입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300리얄(월간 가계수입이 21,255리얄 이하인 경우)에서 최대 1,184리얄(월간 가계수입이 13,365리얄 이하인 경우)의 가계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국내경제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보조금 감축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의 추가 지원책을 국왕 칙령(2018.1.6)으로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에 500억 리얄이 지원됨.
 - 1월 1일부로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해 연간 보너스 지급
 - 1년 간 공무원 및 군인에게 매월 1,000리얄의 수당 추가 지급
 - 남부 최전선 근무 군인(예멘 내전 관련)에게 5,000리얄 지급
 - 공적연금 및 GOSI(산업재해보험) 지급 퇴직연금에 1년 간 월 500리얄 추가 지급
 - 기초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생활비 월 500리얄 지급
 - 학생에 대한 수당을 1년 간 10% 인상 지급
 - 민간 의료 서비스와 사립학교 교육비 부가가치세의 정부 부담
 -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발생 부가가치세 중 85,000리얄을 정부 부담
 - 공무원 급여일을 공공요금 청구 이전인 매월 27일로 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이 거듭되면서 공공부채 규모 증가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국채 발행과 외환보유고에서 충당할 계획임. 특히 국가의 핵심 인프라(교통, 주택, 발전, 담수 등) 구축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7~20년 중 매년 평균 1,633억 리얄(435.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임.
- 국채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공공부채 규모는 2018년 말 GDP의 2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말에는 GDP의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018년 1월 발표한 Budget Statement Fiscal Year 2018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부채는 2017년 말 1,168억 달러(4,380억 리얄, GDP의 17.0%)로 집계되었음. 이는 2014년 말 118억 달러(443억 리얄, GDP의 1.6%)의 9.9배에 달하며, 공공부채 중 대외부채 비중은 42%로 집계됨.
 - ※ 리얄화 표시 이슬람채권의 경우 2017년 584.55억 리얄 규모, 2018년 1~7월 422.15억 리얄 규모가 발행되었음.
- 이처럼 급속한 공공부채 비율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해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채권 가격도 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부가가치세 도입,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 추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1%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왔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1.3%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초부터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보조금 삭감으로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이 연이어 인상되면서 2016년 2.0%로 상승하였음.

국내경제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에는 주로 에너지 가격의 추가 인상 유보에 힘입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연료·전력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된 개별소비세의 물가상승 효과 발현 및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2%대 후반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로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통해 일반 무연휘발유(옥탄가 91) 가격을 리터당 1.37리얌으로 82.6%, 고급 휘발유(옥탄가 95) 가격을 리터당 2.04리얌으로 126.6%나 인상하였음. 아울러 가정용, 상업용, 농업용 전력요금도 기존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5년까지 실제 발전용 연료가격을 점차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임. 이에 따라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과 유사한 2%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2018년 1월 1일부로 적용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연료 가격 인상 내역

구 분		종전 가격 (리얌/리터)	인상 가격 (리얌/리터)	인상률(%)
휘발유	옥탄가 91	0.75	1.37	82.6
	옥탄가 95	0.90	2.04	126.6
경 유	산업용 및 발전용	0.33	0.378	14.5
	수송용	0.47	0.47	-
등 유		0.64	0.64	-

<표 3> 2018년 1월 1일부로 적용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요금 인상 내역

구 분	종전 가격		인상 가격	
	사용량(kWh/월)	요금(리얌/kWh)	사용량(kWh/월)	요금(리얌/kWh)
가정용	1~2,000	0.05	1~6,000	0.18
	2,001~4,000	0.10		
	4,001~6,000	0.20		
	6,000 초과	0.30	6,000 초과	0.30
상업용	1~4,000	0.16	1~6,000	0.20
	4,001~8,000	0.24		
	8,000 초과	0.30	6,000 초과	0.30
농업용 및 비영리단체	1~4,000	0.10	1~6,000	0.16
	4,001~8,000	0.12		
	8,000 초과	0.16	6,000 초과	0.20
산업용	모든 구간	0.18	모든 구간	0.18
정부기관	모든 구간	0.32	모든 구간	0.32
사립병원	모든 구간	0.18	모든 구간	0.18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73,758	-56,724	-23,843	15,229	60,774
경상수지/GDP	9.8	-8.7	-3.7	2.2	7.9
상 품 수 지	183,995	44,265	55,764	101,744	155,017
상 품 수 출	342,457	203,537	183,607	221,072	286,278
상 품 수 입	158,462	159,271	127,843	119,328	131,261
외 환 보 유 액	718,921	603,986	526,064	486,634	506,136
총 외 채	88,800	79,134	135,450	199,917	212,160
총외채잔액/GDP	11.8	12.1	21.0	29.1	27.6
D.S.R.	1.6	2.2	2.9	4.4	5.2

자료: IMF, EIU

감산 결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경상수지는 2017년 흑자 회복

-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전 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간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추세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하며 상품수지 흑자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2015년 GDP 대비 -8.7%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3.7%의 적자를 시현하였음.
- 2017년에는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출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2.2%의 흑자를 회복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10월 초까지 계속 이어짐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8%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10월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유가는 12월 7일의 OPEC Plus 합의에 따른 일일평균 120만 배럴 감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둔화 예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2019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저유가의 여파로 외환보유액 감소 및 외채잔액 증가

- 외환보유액은 2014년까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면서 외환보유액도 최근 수년 간 감소 추세를 보였음.

※ 외환보유액(억 달러) : 7,189('14) → 6,040('15) → 5,261('16) → 4,866('17) → 5,061('18e)

-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미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해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18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10%대 초반, D.S.R.은 5%대 초반으로 각각 추정되어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총외채잔액(억 달러) : 888('14) → 791('15) → 1,355('16) → 1,999('17e) → 2,122('17e)

- SWF Institute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SAMA Foreign Holdings와 공공투자기금(PIF)은 2018년 8월 말 기준 각각 5,156억 달러(세계 6위)와 3,600억 달러(세계 10위)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으로, 이는 대외지급능력 유지의 안전판으로 작용함.
- 다만, SAMA Foreign Holdings의 자산규모는 저유가 추세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인해 2015년 6월 말 6,856억 달러에서 2018년 8월 말 5,156억 달러로 약 25% 감소하였음.

2020년까지 매년 국채 발행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되자, 외환보유고 확보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16년 10월 20일 사상 최초로 175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⁹⁾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2017년 9월(125억 달러) 및 2018년 4월(110억 달러) 각각 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633억 리얄(약 435.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4월 13일 90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이슬람채권(sukuk)¹⁰⁾을 최초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미 달러화 표시(110억 달러) 및 리얄화 표시(1,006.7억 리얄)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였음.

<표 4> 2016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국채 발행 현황

발행형태		Global Note	이슬람채권(Sukuk)		합 계
발행통화		미 달러화	미 달러화	리얄화	
발행회수		3회	2회	7회	12회
발행 금액	미 달러화	USD410.00억	USD110.00억	-	USD520.00억
	리얄화 (미 달러화 환산)	-	-	SAR1,006.70억 (USD268.45억)	SAR1,006.70억 (USD268.45억)
	합계	USD410.00억	USD110.00억	USD268.45억	USD788.45억

9) 당시 입찰금액은 670억 달러를 기록, 발행총액이 당초 계획(15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음.

10)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채권 방식으로, 채권 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을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함.

외채상환능력

<표 5>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발행시기별 국채 발행 내역

발행시기	내 용	발 행 액
2016.10월	최초 국채(conventional) 발행	175억 달러
2017. 4월	미 달러화 표시 최초 이슬람채권(sukuk)	90억 달러
2017. 7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1차)	170억 리알(45.3억 달러)
2017. 8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2차)	130억 리알(34.7억 달러)
2017. 9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3차)	70억 리알(18.7억 달러)
2017. 9월	2차 국채(conventional)	125억 달러
2017.10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4차)	214.55억 리알(57.2억 달러)
2018. 1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5차)	179.2억 리알(47.8억 달러)
2018. 4월	3차 국제채권(Global Note)	110억 달러
2018. 4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6차)	120.5억 리알(32.1억 달러)
2018. 7월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7차)	122.45억 리알(32.7억 달러)
2018. 9월	미 달러화 표시 제2차 이슬람채권	20억 달러

<표 6> 2017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리알화 표시 이슬람채권 발행 내역

발행차수 (일자)	구 분 (Tranche)	만기일자	발행금액 (억 리알)	약정금리 (연이율)
1 차 (2017. 7.26)	5년물	2022. 7.26	120.00	2.95%
	7년물	2024. 7.26	29.00	3.25%
	10년물	2027. 7.26	21.00	3.55%
	소 계			170.00
2 차 (2017. 8.23)	5년물	2022. 8.23	20.75	2.70%
	7년물	2024. 8.23	77.25	3.20%
	10년물	2027. 8.23	32.00	3.50%
	소 계			130.00
3 차 (2017. 9.20)	5년물	2022. 9.20	24.50	2.75%
	7년물	2024. 9.20	38.50	3.25%
	10년물	2027. 9.20	7.00	3.45%
	소 계			70.00
4 차 (2017.10.25)	5년물	2022.10.25	76.00	2.95%
	7년물	2024.10.25	66.80	3.20%
	10년물	2027.10.25	71.75	3.65%
	소 계			214.55
5 차 (2018. 1.24)	5년물	2023. 1.24	120.95	3.25%
	7년물	2025. 1.24	37.75	3.45%
	10년물	2028. 1.24	20.50	3.85%
	소 계			179.20
6 차 (2018. 4.25)	5년물	2023. 4.25	94.25	3.40%
	7년물	2025. 4.25	15.00	3.50%
	10년물	2028. 4.25	11.25	3.75%
	소 계			120.50
7 차 (2018. 7.25)	5년물	2023. 7.25	70.92	3.50%
	7년물	2025. 7.25	30.05	3.62%
	10년물	2028. 7.25	21.48	3.80%
	소 계			122.45
1~7차 합계	5년물		527.37	(US\$140.63억)
	7년물		294.35	(US\$78.49억)
	10년물		184.98	(US\$49.33억)
	합 계			1,006.70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재정부 등.

구조적취약성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

-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석유 부문은 2017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의 40% 이상, 재정수입의 60% 이상 및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공공 부문의 과도한 비중과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구조적 취약성 가중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영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민간 부문의 발전이 부진하며, 따라서 총고용에서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 다국적 컨설팅 기업 McKinsey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인구의 약 70%가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 중임. 이처럼 고용에서의 비중이 높음에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짐.¹¹⁾

성장잠재력

원유매장량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6위의 에너지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7%에 달하는 2,662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4.2%에 해당하는 8.0조m³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
- 원유는 대부분 동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인 Ghawar(700억 배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유전인 Safaniyah(190억 배럴) 및 Abqaiq, Berri 등임.
-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17년 일일 평균 에너지자원 생산량은 원유 1,195.1만 배럴(전 세계 생산량의 12.9%, 세계 2위) 및 천연가스 1,114억 m³(전 세계 생산량의 3.0%, 세계 8위)로 집계됨.
- 아올러,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비석유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석유자원의 개발에 국력이 집중되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표 7>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유(만 배럴/일)	1,139.3	1,150.5	1,199.4	1,240.2	1,195.1
천연가스(억 m ³ /년)	950	973	992	1,053	1,114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11) 2016년 10월 Khalid bin Abdullah al-Araj 당시 행정장관은 자국 공무원의 대다수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일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정책성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다변화 추진의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5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 및 지식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장기전략 2024(Long-Term Strategy 2024)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5개년 개발계획을 매 5년마다 발표해 왔음.
- 아울러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사우디전력공사(SEC) 및 사우디아항공 민영화, 사우디텔레콤(STC) 증시 상장, 국영광업공사(MAADEN) 지분 매각 등이 이루어진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국영기업 및 정부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의 높은 석유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의 정책성과는 당초 목표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2017.3.22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된 Fitch는 정부 재정과 대외수지의 지속적 악화에 더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다양화 개혁 의지가 미미한 점"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였음.

자국민 우선고용 정책인 Nitaqat, Guided Localization 강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자국민 우선고용 정책(Nitaqat¹²), 영어로는 Saudization)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노동부는 기업들을 자국민 고용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동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외국인 고용 비자 신청시 혜택을 주는 반면, 동 비율이 낮은 기업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함.
- Nitaqat의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6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대하여 최고 수준인 Platinum 등급과 낮은 수준인 Lower Green 등급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건설기업의 경우, 직원 수 500명 이상 2,999명 이하 기업은 Platinum 등급을 받기 위한 자국민 고용비율이 '16% 이상'에서 100%로 대폭 강화되고, Lower Green 등급의 자국민 고용비율도 6%에서 10%로 강화됨.
- 소매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Platinum 등급을 받기 위한 자국민 고용비율이 '35% 이상'에서 100%로 대폭 강화되며, Lower Green 등급의 자국민 고용비율도 24%에서 35%로 강화됨.
- 아울러 9월부터 식료품점과 제과제빵점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되었으며, 자동차 렌탈, 보건(healthcare), 쇼핑몰 등의 업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Nitaqat의 강화를 통해 자국민 공식 실업률을 현행 12.1%에서 2020년까지 9%로 낮춘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저임금의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국민은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 축소가 자국민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 최근 상점의 계산원이나 판매원 등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종의 경우 자국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 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자국민을 찾아보기 어려움.
- 아울러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 축소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민간 부문 육성과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12)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설정하고, 동 비율의 달성율에 따라 기업을 Platinum, Green, Yellow 및 Red로 분류하여 행정적 혜택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임. 현재 적용대상 업종은 68개, 기업규모 구분은 6단계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책성과

-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부는 2018년 1월 7일 자국민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소매유통 부문 12개 업종에 대한 자국민 의무고용 지침을 발표하였음. 동 지침은 Nitaqat와는 별도로 2016년 도입된 Guided Localization¹³⁾에 따른 자국민 고용 촉진 정책의 하나로, 8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됨.
- 12개 소매유통 업종은 ①자동차 및 이륜차, ②기성복(아동 및 남성의류), ③가정용 및 사무용 가구, ④주방용품, ⑤전기·전자제품, ⑥시계, ⑦안경, ⑧의료기기, ⑨건축자재, ⑩자동차 부품, ⑪카펫, ⑫제빵제품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부는 약 49만 개의 일자리가 대상이라고 추정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소매유통업의 Saudization 비율은 약 24%로 추정되며, 사우디 노동부는 동 비율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임. 이미 2016년부터 통신기기 판매, 금 등 귀금속 판매, 자동차 렌탈, 관광숙박업 등에서의 사우디인 100%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임.
- 그러나 12개 소매 유통업종 자국민 의무고용제 시행 이전부터 사우디인을 채용하지 못한 상점의 영업 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노동부는 8월 8일자로 지침의 시행을 아래 표와 같이 3단계 시행으로 조정하고, 자국민 의무고용비율도 당초 100%에서 70%로 완화하되 점차 비율을 늘리도록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음.
- 아울러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조건도 추가로 발표하였는 바, 6개월 간 10명의 사우디 국적자 지속 고용시 상점관리를 위해 1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5명의 사우디 국적자당 청소 및 화물 적재를 위해 1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표 8>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의무고용 대상 소매유통 업종 및 적용개시 시점

회차	시행일	대상 업종
1차	2018. 9. 11.	자동차 및 이륜차, 기성복(아동·남성 의류), 가정·사무용 가구, 주방용품
2차	2018. 11. 9.	전기·전자제품, 시계, 안경
3차	2019. 1. 7.	의료기기,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카펫, 제빵제품

- Nitaqat과 Guided Localization 시행으로 자국민 고용 할당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오히려 기존에 고용된 내외국인 노동자의 실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기업은 출근하지 않으나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사우디인 노동자를 등록하는 편법 사례(Ghost Saudization)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고용 증가는 여전히 정체 상태이며, 2018년 1분기의 경우 자국민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표 9> 2017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 추이

단위: %

분기별	사우디 국적자			외국 국적자			합 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2017년 1분기	7.2	33.0	12.7	0.4	1.8	0.5	3.2	20.3	5.8
2017년 2분기	7.4	33.1	12.8	0.5	2.0	0.6	3.3	22.9	6.0
2017년 3분기	7.4	32.7	12.8	0.3	1.2	0.4	3.2	21.1	5.8
2017년 4분기	7.5	31.0	12.8	0.4	1.8	0.5	3.2	21.1	6.0
2018년 1분기	7.6	30.9	12.9	0.5	2.0	0.7	3.4	21.0	6.1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

13) 민간 부문의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단계별로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일부 업종에는 100% 자국민만을 고용토록 강제하는 제도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책성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개발계획 "Saudi Vision 2030"의 추진

- Salman 국왕의 장남이자 현재 실질적인 국왕으로 간주되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당시는 부왕세자)는 2016년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위한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 "Saudi Vision 2030"은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권력 최고위층의 위기의식의 발로로 평가됨.
- "Saudi Vision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의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임.
- 이중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는 (1) 기회에 대한 보상(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육성), (2) 장기적 투자(민간·신성장 부문의 육성), (3) 사업환경 개선(경쟁력 제고), (4) 지정학적 장점 활용 극대화(무역·투자 증진)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실업률 하락(11.6% → 7%),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제고(20% → 35%), 총고용의 여성 비중 제고(22% → 30%), 석유·가스 부문 국산화율 제고(40% → 75%),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¹⁴⁾의 자산규모 증대(6,000억 리얄 → 7조 리얄) 등을 추진함.
- 또한 2030년까지 GDP 대비 FDI 비중 제고(현재 3.8% → 5.7%),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현재 40% → 65%), 비석유 부문 GDP 대비 비석유 부문 수출 비중의 제고(현재 16% → 50%) 등도 추진함.

"Saudi Vision 2030"의 경제 부문 핵심은 Aramco의 개혁과 비석유 부문의 육성 및 세입 증대

- 경제 부문에서 "Saudi Vision 2030"의 핵심은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조직과 역할의 전면적인 개편 및 기업공개(IPO)로 마련한 재원을 투자하여 비석유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있음. Aramco의 IPO 및 지분 일부의 주식시장 상장은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직접 계획하고 지시한 사항임.
- 구체적으로는 Aramco 주식(5% 미만, 본사 및 자회사 포함)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주식 매각자금 및 국가 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PIF로 이전하여 PIF의 자산규모(현재 약 1,600억 달러)를 약 2조 달러로 늘림으로써 투자수익을 대폭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Aramco를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현재 5% 수준인 PIF의 해외투자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 아울러 PIF의 국내외 투자수익, 재정개혁,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비석유 부문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14) PIF는 2008년 설립되었으며, 자산규모는 2018년 8월 말 기준 약 3,600억 달러로 제조업과 산업 인프라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 개발형 펀드임.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산하였으나 2015년 Salman 국왕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제개발위원회(CED, 석유부·재무부 등 20여명의 장관이 참여하는 국왕 직속의 경제개발 총괄기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후 PIF는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특히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성장동력 다변화를 독려하면서 2016년부터 글로벌 투자시장의 큰손으로 부각되었음. 투자영역도 당초의 제조업·인프라 위주에서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일본 소프트뱅크의 정보기술(IT) 투자펀드인 Vision Fund에 450억 달러,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기업 Uber에 35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정책성과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3.27자 발표된 칙령(Royal Decree)을 통해 석유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의 일괄 85%에서 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최고 50% 수준까지 인하키로 결정하였음.¹⁵⁾
- Aramco는 동 조치로 법인세율이 85%에서 50%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당기순이익이 300% 이상 증가하고, 잠재적 기업가치가 최대 1.5조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개혁을 추진할 정부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 보조금에 의존적인 국민들의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 기존의 보수 이슬람적 정치·사회 질서와의 충돌 등이 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실제로 Aramco의 IPO 및 주식 상장 추진도 당초 계획(2017년 중 실행)과 달리 2018년 8월 일시 보류키로 결정됨.
- 2018.10.5자 Bloomberg 보도에 의하면,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2021년 초를 시한으로 정하고 Aramco의 IPO를 재추진할 것이며, Aramco의 기업가치가 2조 달러 이상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였음. 아울러 왕세자는 IPO 후 Aramco 지분을 PIF로 이전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Aramco의 CEO인 Amran Nasser는 2018.11.26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영 석유화학기업 SABIC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고, 천연가스 개발과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향후 10년 간 총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중동 1위이자 세계 4위의 석유화학기업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상장회사인 SABIC의 지분 인수 소요비용은 약 750억 달러, 천연가스 개발 투자규모는 약 1,600억 달러, 석유화학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약 1,000억 달러로 알려짐.
- SABIC 지분의 70%는 PIF가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동 지분 중 50%를 Aramco가 인수하면 Aramco의 현금 이 PIF로 유입되며, Aramco는 석유화학 부문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가능해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산업 육성전략의 중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 2016년 6월 발표된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약칭 NTP 2020)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포함 24개 기관에서 총 178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71개 지표 및 346개 실행목표를 각각 설정하였음.
- 추진 계획은 각 기관별 과제 확정 및 2020년 중간목표 설정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Initiatives) 개발 ⇨ 개혁과제의 구체적 추진 계획 확정 ⇨ 전략목표와 개혁과제 추진 결과 공개(정책 투명성 제고) ⇨ 정기적 평가, 재검토로 추진 현황 점검의 5단계로 구성됨. 주요 개혁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정부재정 분야 : 비정부 부문의 세입 확대 및 신규 고용 창출, 국가자산 규모 확대, 간접세 도입 및 보조금 삭감, 공공 부문 인건비 삭감 등
 - ② 에너지 분야 : 천연가스 증산, 원유 정제용량 증대, 재생에너지 개발
 - ③ 산업 분야 : 복합 해양산업단지 건설, 비석유 부문 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증대, 성지 순례객 유치 증대

15) 자본금 600억 달러 미만 기업 : 85% / 자본금 600억 달러 이상 800억 달러 미만 기업 : 75% / 자본금 800억 달러 이상 1,000억 달러 미만 기업 : 65% / 자본금 1,000억 달러 이상 기업 : 50%

정책성과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재정균형 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

- NTP 2020 발표로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12월 발표된 재정균형 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 약칭 FBP 2020)은 저유가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재정수입 확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로 2020년까지 국가재정 균형을 달성(또는 재정흑자 시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함.
- 다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과 세계경기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균형 달성 목표시한을 2023년으로 늦추었음.
- FBP 2020의 세부 추진방안은 ①비석유 부문 재정수입 확대, ②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③공공요금 가격체계 개편, ④보조금 제도 개편, ⑤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등임.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 선정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이사회(CEDA)는 2017.4.30자로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하였음. 동 프로그램은 NTP 2020 및 FBP 2020의 연장선에서 선정된 것임.
- 10대 프로그램은 ①주택, ②성지 순례객 지원, ③생활방식 개선, ④국가 정체성 강화, ⑤기업의 국가 리더십 지원, ⑥국가산업과 물류 서비스 개발, ⑦공공투자기금(PIF) 역할 강화, ⑧전략적 파트너십, ⑨ 금융 부문 개발, ⑩민영화로 구성됨.
- CEDA 내 전문위원회가 10대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CEDA가 10대 프로그램 및 실행계획의 이행을 2020년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임.

정치동향

실질적인 군주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석유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을 전격 교체하며 친위 내각 구축

- 2015년 1월 제7대 Salman 국왕의 즉위 후 4월 부왕세자로 책봉된 국왕의 장남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2017년 6월 21일 반포된 칙령에 의해 사촌형인 Muhammad bin Nayef 왕세자가 폐위되면서 신임 왕세자로 책봉되었음.¹⁶⁾
- 그러나 이 과정에서 Muhammad bin Salman 왕자가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감금하고 물러날 것을 강요하였으며, Muhammad bin Nayef 왕자는 폐위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 동시에 가족과 함께 가택 연금에 처해졌음.¹⁷⁾ 이처럼 Muhammad bin Salman 왕자가 강압으로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물러나게 한 사실이 알려져 왕실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 불안이 고조됨.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부왕세자 시절 2016년 4월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의 주도하에 수립된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1995년부터 재직해온 Ali al-Naimi 석유부 장관을 Aramco 회장인 Khalid al-Falih로 교체하고, 석유부의 명칭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Wealth)로 변경하였음.
-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전통적으로 비(非)왕족 출신의 전문 관료들이 역임해온 석유정책 담당 장관직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인 al-Falih를 임명하여, 전권 장악을 위해 석유 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또한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중앙은행인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총재도 직접 경질하여 통화정책 결정권자까지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친위 내각을 구축하였음.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 주도의 반부패위원회는 2017년 11월 4일 부패 척결을 명분 삼아 11명의 왕자와 전·현직 장관 등을 체포·연금하는 '왕자의 난' 속칭 단행

- 2017년 11월 4일 칙령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부패혐의자에 대한 수사·체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Initiative)의 창설과 더불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칙령 발표 당일 최소 11명의 왕자들은 물론 전·현직 장관 및 고위 관료, 유력 사업가 등 200여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여 수도 Riyadh의 Ritz Carlton 호텔에 연금하였음.¹⁸⁾

16) Salman 국왕은 즉위 3개월 후인 2015년 4월 29일 칙령을 내려 자신의 이복동생이자 왕위 계승서열 제1위인 Muqrin bin Abdulaziz 왕세제(王世弟)를 폐위하고, 대신 조카인 Muhammad bin Nayef 왕자(Salman 국왕의 친형인 Nayef 前왕세제(2012년 6월 사망)의 차남)를 왕세자로 책봉하고 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에 임명하는 한편, 자신의 장남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를 부왕세자(왕위 계승서열 제2위)로 책봉하고 제2부총리 겸 국방장관에 임명하였음. (당시 만 29세의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전 세계에서 최연소 국방장관이 되었음.)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형제 상속 원칙을 폐지한 것으로, 왕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짐.

17) 대테러 전문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대테러 정책을 총지휘해온 Muhammad bin Nayef 왕자의 폐위와 공직 배제에 대하여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로부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18) 연금된 왕자들 중에는 억만장자이자 국제투자자로 잘 알려진 Al-Waleed bin Talal 왕자, 왕실 경호 담당인 국가수비대(National Guards) 장관이자 사우디 제3군단 사령관인 Mutaib bin Abdullah 왕자, 그의 동생이자 前Riyadh 주지사인 Turki bin Abdullah 왕자 등이 포함되었음. 또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Asir 주의 부지사(deputy governor)이자 사업가인 Mansour bin Muqrin 왕자가 Asir 주의 주도 Abha 근교에서 의문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음.

정치동향

- 체포·연금된 왕자들 중 Mutaib bin Abdullah 왕자는 선왕인 Abdullah 국왕의 아들로, 앞서 왕세자위에서 폐위되고 가택연금된 Muhammad bin Nayef 왕자와 더불어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왕위계승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임.
- Salman 국왕은 Mutaib bin Abdullah 왕자 체포 수 시간 전에 그를 사우디 제3군단 사령관직에서 해임하였는데, 제3군단은 그동안 제1/2군단과 달리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왕자들에 대한 체포·연금, 이른바 '왕자의 난'의 실체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자신의 왕위계승에 유력한 경쟁자인 왕자들과 그 동조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치적 숙청으로 분석됨.
-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전통적으로 '친형제 간이 아닌' 몇 명의 왕자들이 군부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이미 국방장관(상비군 통할)을 겸하고 있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숙청을 통해 군부 권력을 독점함.
- 내무장관(경찰·정보조직 통할)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테러 정책을 총지휘해온 Muhammad bin Nayef 왕자의 왕세자 폐위 및 숙청에 이어 국가수비대 장관(정예군 통할)인 Mutaib bin Abdullah 왕자까지 제거하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보와 관련된 전권을 장악함.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동년 11월 23일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금번 숙청에 대해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2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부패척결 작업의 결과물"이라 주장하고 "구금된 인사 95%가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재산 환수에 동의하였으며, 그들이 부정축재로 만든 재산(최소 1,000억 달러)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은 2017년 12월 5일 성명을 발표, 반부패위원회가 부패 혐의 관련 계좌를 동결한 왕족기업인·정치인은 구금자 포함 총 376명이라고 밝혔음. 이후 조사 및 구금 대상자들은 모두 거액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수용 가능한 타협안'에 합의하고 사면 또는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 개혁정책 추진과 더불어 향후에도 왕실 내 숙청 계속 전망

- 현재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개혁은 보수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엄격한 신정일치(神政一致), 왕실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심하게 편중된 부(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염증과 반감을 지닌 대부분의 젊은층으로부터는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개혁 추진은 단기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로서는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왕실 내 연장자들과 보수 이슬람 성직자들 및 기성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왕위계승 후에도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반기를 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왕자들 및 그 지지세력을 제거하는 숙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왕실 내 갈등과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치동향

망명 언론인 Jamal Kashoggi 살해사건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국제적인 파문 초래

-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저명 언론인 Jamal Kashoggi가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을 방문했다 실종되었으며, 이후 그가 영사관 내에서 살해당한 정황이 드러났음.¹⁹⁾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 성향 일간지 Al Watan의 편집장을 역임한 Kashoggi는 알카에다의 수장 Osama bin Laden과의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인물임.
- 이 사건을 조사한 터키 정보당국 및 친정부 언론에 의해 Kashoggi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파견된 암살단에 의해 영사관 내에서 고문을 당하고 참혹하게 살해된 사실이 폭로되었으며,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암살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상황이 알려져 국제적인 파문이 발생하였음.
- Kashoggi는 원래 1990년대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가까운 관계였으나, Al Watan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시(國是)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무슬림형제단²⁰⁾을 옹호하며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및 정부와 갈등을 빚었음.
-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중 혁명을 지지하여 결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적대 관계로 돌아선 Kashoggi는 결국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2017년 9월 이후 미국에 체류하며 Washington Post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 대 카타르 단교 사태 등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에 의한 무모한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였음.
- 사건 공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Kashoggi가 살아서 영사관 밖으로 걸어나갔으며 암살팀 파견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불리한 증거가 하나씩 공개되자 10월 20일 자국 정보기관원들이 Kashoggi의 귀국을 설득하다 다툼이 벌어져 우발적인 사고로 Kashoggi가 사망했다고 말을 바꿨음.
- 이후 친정부 언론을 통한 터키 정보당국의 폭로가 이어져 Kashoggi가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참살당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정보기관원들이 자의적으로 Kashoggi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암매장했으며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꿨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관리 5명을 경질했다고 발표하였는데, 5명 중에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보총국의 Ahmed al-Asiri 부국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고문(advisor) Saud al-Qahtani가 포함되었음. 2성 장군 출신인 al-Asiri는 예멘 내전 개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al-Qahtani는 왕세자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Kashoggi를 회유코자 시도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암살을 주도한 자들이 암살 전후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최측근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어떻게든 Kashoggi의 입을 다물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등 모든 정황이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살인의 직접 지시자로 지목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공개수사 촉구엔 설득력 없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음.

19) Kashoggi는 터키 국적의 약혼녀와의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을 위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을 방문한 것인데, 이 방문도 사우디아라비아측이 그를 영사관으로 계획적으로 유인한 결과로 알려짐.

20)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공화정을 주장하여, 신정(神政) 일치의 중세적인 절대군주제를 유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 대부분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음. 다만, 카타르는 예외적으로 무슬림형제단 관계자들의 자국 망명을 허용하였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에 의한 대 카타르 단교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정치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은 1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Kashoggi의 귀국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로 급파되었던 협상 담당 책임자가 협상에 실패하자 Kashoggi를 살해한 것으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살해사건의 최고 지휘자는 협상팀장으로 이스탄불에 파견된 인물이라고 발표하였음.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은 Kashoggi 살해에 관련된 21명을 체포하여 그중 용의자로 11명을 기소하고, 이중 5명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Kashoggi 살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국제적인 비난과 조롱을 초래하였음.

Kashoggi 살해사건에도 불구하고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권력 유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외적 이미지의 손상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 Kashoggi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에 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는 과격한 성격의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자국 내 반대세력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 Kashoggi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국왕이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국의 왕자로 성장하여 젊은 나이에 모든 권력을 장악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사소한 비판도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응징하여 잠재적 반대세력을 억압코자 한다는 분석임.
- Kashoggi 살해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국제적 평판에 오점으로 남겠지만, 이미 국내에서 전권을 장악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Trump 대통령으로부터 Kashoggi 살해사건에 대한 묵인을 공개적으로 약속받은 만큼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권력 유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Kashoggi 살해사건은 누구든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눈 밖에 나면 사소한 이유라도 숙청을 넘어 피살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왕실 내부와 권력층에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곧 숙청당하기 전에 왕세자를 제거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시도를 초래할 수 있어 왕세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향후에도 왕실 내부와 권력층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숙청을 되풀이할 전망이며, 이는 왕세자에 대한 내부 반발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암살 음모의 가능성마저 높게 될 것임.
- 1964년 11월 무능한 이복 형인 Saud 국왕을 축출하고 즉위한 Faisal 국왕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실 내부 및 국내 보수 세력과 갈등을 거듭하다 1975년 3월 조카인 Faisal bin Musaid 왕자에게 암살당한 선례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왕세자가 Kashoggi 살해사건으로 인한 왕실 내부 및 성직자 계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아버지 Salman 국왕의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국왕이 1년 내로 왕세자에게 양위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젊은 개혁군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던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Kashoggi 살해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손을 피로 물들인 잔인한 폭군'으로 낙인찍힌 상황이며, 이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위신에도 지속적인 손상을 끼쳐 왕세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됨.

사회동향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은 2018.7.5.자 보고서에서 2018년 1분기 실업률을 12.9%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인구의 3분의 2를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부터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민화(Saudization) 정책을 시행한 이래 계속 강화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높고 민간 기업들이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숙련도는 더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공공 부문에의 과도한 고용 집중 현상으로 민간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 자국민들이 3D 업종을 거부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점도 고용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시아파에 대한 차별, 청년층의 왕실에 대한 불만 등도 사회불안 요인

- 전 인구의 약 15%로 추산되는 시아파 신도들(Shias)은 왕정 전복을 노리는 극단주의 조직들 및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의 연계 의혹으로 정치·외교 분야 공식 참여, 여행, 거주 제한 등의 차별을 겪고 있음.
-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부패 만연 등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현재 전 세계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간부급 조직원 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7월 4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알려진 3건의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1건은 메카에 이은 이슬람 제2의 성지인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 근처에서 발생하여 이슬람 세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음.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근 국가 리더십의 부재와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전횡에 대한 비판 제기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절대군주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곧 이슬람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아울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경제적 유효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여전히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2015년 9월 24일 이슬람 제1의 성지인 메카 외곽에서 열린 성지순례(하지) 행사에 사람이 몰려 약 1,450명이 압사하는 대참사 발생 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적절한 후속책의 부재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거둬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내정과 외교에서 모두 전권을 장악하고 과격한 정책을 추진하는 전횡을 거듭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왕실 내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성직자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불만과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회동향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에 의한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남녀차별 문제는 개선을 거듭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자 Abdullah 국왕 재위 당시부터 온건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등 최근 수년 간 서서히 여성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외출시에 성인 남성 보호자(아버지, 남편, 남자 형제 등)와 동행해야 하며, 국내외 여행에도 '후견인'으로 불리는 성인 남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 여성은 심지어 '후견인'의 허락 없이는 모르는 남성과의 대화도 금지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추진 중인 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26일 칙령을 통해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의 자동차 운전이 허용되었음.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법으로 금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임.
- 역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에 의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설립된 엔터테인먼트청(GEA)은 그 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가 Yani의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공연장 내에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을 모두 입장시키는 파격을 단행하였음.
- 한편, 2018년 9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 Al-Saudiya의 저녁 뉴스 시간에 최초의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와 공동 진행자로 등장하는 등 종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개혁적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이 이슬람 고위 성직자 등 기존의 보수층은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일부 청년층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여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Thompson Reuter 재단이 2018년 6월 발표한 여성문제 전문가 5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와 더불어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위협에 처한 5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Amnesty International과 Human Rights Watch는 11월 20일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 인권운동가들을 임의로 체포, 구금하여 고문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등 여전히 여성 인권이 열악한 수준임.

국제관계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대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뿌리 깊은 반미감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보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이란 핵협상의 파기를 관철시킨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세계의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지, 걸프전 당시 미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등의 이유로 깊은 반미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정책과 국민감정 간에는 괴리가 있음.
-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자 이슬람 제1의 성지 메카와 제2의 성지 메디나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교도 군대가 들어왔다 하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실제로 9.11 테러를 주도한 Osama bin Laden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지도자들 중 대다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임.

Trump 미 대통령은 Kashoggi 살해사건 관련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왕세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 자신의 사위인 Jared Kushner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Trump 미 대통령은 Kashoggi 살해사건에 대하여 11월 20일 백악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왕세자가 Kashoggi 살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든 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주었음.
- 이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역내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특수 동맹 관계 지속이 중요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무기 판매를 포함한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서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에게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임.
- Trump 대통령은 성명서 첫 줄을 “America first!”로 시작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기업들과 (Boeing, Lockheed Martin 등과 체결한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 포함)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부를 안겨줄 것이며, Kashoggi 살해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미 재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이 기소한 용의자 17명에 대해 입국금지 등 재제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 안정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Jared Kushner는 Kashoggi 살해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와 통화하며 사건에 대하여 왕세자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음.

국제관계

- 이에 미국 언론은 물론 의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Trump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음. 미 상원은 12월 13일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Kashoggi 살해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56표, 반대 41표로 통과시켰음.
- 미 중앙정보국(CIA)은 Kashoggi 살해사건 조사 결과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최소한 암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Trump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
- 따라서 미 행정부는 무조건적으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비호하는 반면, 미 의회와 여론은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에게 Kashoggi 살해의 책임을 묻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의 성격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국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Kashoggi 살해사건 관련 침묵 유지,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터키는 증거 공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며 이익 추구

- 세계 각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상품수출(특히 거액의 무기 수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Kashoggi 살해사건에 대해 거의 전부 침묵을 유지하고 있음.
- 1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Kashoggi 살해 용의자 18명의 입국을 금지한 독일의 조치가 가장 강경한 수준이며,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의 제2위, 제3위 무기 수입대상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음.
-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Kashoggi 살해사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회피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이용코자 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최로 지난 10월 23일 리야드에서 개막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FII)에도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고위 관료들과 재벌 총수들을 파견하였음.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사실상 주관하는 FII는 2017년 10월 제1회 행사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장관급 고위 관료들, 다국적기업 CEO 등 90여개국에서 3,800여명이 참석하여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란 별명을 얻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금년도 제2회 행사는 Kashoggi 살해사건의 여파로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미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 대표, 각국 고위 관료,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 CEO들이 참석을 취소하고 중 언론들도 취재를 거부하였음.
- 한편, 자국 내에서 발생한 Kashoggi 살해사건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압박의 카드를 획득함으로써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터키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터키 이스탄불 법원은 12월 5일 al-Asiri와 al-Qahtani에 대해 Kashoggi 살해 모의 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 앞서 이스탄불 검찰은 이들이 Kashoggi 살해 현장에는 없었으나, 암살계획 수립에 개입한 '강력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음.
-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의 Adel al-Jubair 외교장관은 12월 9일 리야드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al-Asiri와 al-Qahtani에 대한 터키 정부의 인도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였음.

국제관계

속적 이란과는 2016년 1월 단교 후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충돌하며 관계 악화

-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팔레비 왕가 축출 이후 오랜 속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2005년 이란에서 강경 보수파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이자 공화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및 공화주의 세력이 걸프 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2016년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 주도 혐의로 자국의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하자 이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당일 밤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습격하고, 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성지순례를 제외한 외교·무역 관계 단절을 선언하여 양국 관계가 완전히 냉각되었음.
- 이후 양국은 저유가 해소를 위한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축에 관한 의견 대립,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서 대립 등 모든 면에서 시종일관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음.
-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수니파)을, 이란은 정부(시아파)를 후원하고 있음. 반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수니파)를, 이란은 반군(시아파)을 후원하고 있음.
- 특히 사실상의 국왕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이란과의 대화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철저한 반이란 성향으로, 양국 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경제봉쇄 주도는 역내 갈등 고조를 초래하여 카타르의 OPEC 탈퇴로 이어짐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5월 23일의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계기로 2017년 6월 5일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
- 이어 4개국은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6월 22일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동 조건은 카타르의 주권을 다양한 방향에서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동 사태의 이면에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의 패권을 확립하고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하려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거시적 외교전략이 존재하고 있음.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의 핵심은 Al-Jazeera의 폐쇄, 이란과의 관계 격하, 무슬림형제단의 추방 등임.²¹⁾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 카타르의 위성 방송사인 Al-Jazeera를 통해 자국 내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와 개혁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자국 내 Al-Jazeera 지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을 추방 또는 구금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두려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적, 다원적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카타르가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21)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을 추구하여 중동의 왕정 국가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나,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국제관계

-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 대해 과격한 수준의 내정간섭적 요구를 계속하고 이를 카타르가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음. 그러나 카타르는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 터키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적이거나 덜 우호적인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10월)에 의하면, 카타르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2017년(1.6%)보다 오히려 상승한 2.7%로 추정되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2019년에도 카타르는 2%대 후반의 경제성장 및 재정·경상수지 흑자 달성이 전망됨.
- 카타르의 Saad al-Kaabi 에너지장관은 12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카타르가 2019년 1월 1일부로 OPEC을 탈퇴한다고 발표하였음. al-Kaabi 장관은 카타르의 원유매장량 및 생산량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미미한 반면 LNG 생산량은 세계 1위로, 향후 천연가스 및 LNG 생산에 주력코자 OPEC을 탈퇴한다고 밝혔음.²²⁾
- al-Kaabi 장관은 카타르의 OPEC 탈퇴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대 카타르 단교사태 및 경제봉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분석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OPEC을 탈퇴함으로써 국제 원유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시아파가 전 국민의 60%로 이란과 사이가 가까운 이라크를 향후 6개월 내로 카타르에 이어 OPEC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으로 꼽고 있음. 이라크는 IS(이슬람국가)와의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복구 및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OPEC의 감산 합의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원유 증산을 하지 못하는 점이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원유생산량 결정이 갈수록 OPEC 진영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非OPEC 진영의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 간의 밀실 합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하여 일부 OPEC 회원국들, 특히 이란과 이라크 등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짐.
- 아울러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걸프협력위원회(GCC)에서도 카타르가 탈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만약 카타르가 OPEC에 이어 GCC에서도 탈퇴할 경우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외교적 역량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Salman 국왕은 12월 4일 카타르의 Tamim 국왕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GC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였으나, 카타르는 12월 9일 초청을 거절하고 대신 외무장관을 파견하였음.

예멘 내전에 대한 개입은 민간인 희생을 양산하며 국제적인 비판 초래

- 인접국인 예멘에서 Abdrabbuh Mansur Hadi 대통령이 이끄는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Houthi 반군 간의 내전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정부를 돕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GCC 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 국경 지대에서의 지상군 파병 및 폭격기를 동원하여 예멘을 공습하였음.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와 아덴 만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예멘을 시아파 반군이 지배할 경우, 시아파의 맹주인 숙적 이란에 의해 시리아-레바논-이란-예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가 형성되어 자국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2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카타르의 원유 매장량 및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252억 배럴 및 191.6만 배럴로 각각 전 세계의 1.5% 및 2.1%에 불과한 반면, 천연가스 매장량 및 연간 생산량은 24.9조 m³ 및 1,757억 m³로 각각 전 세계의 12.9%(세계 3위) 및 4.8%(세계 5위)를 점유하였음. 아울러 연간 LNG 생산량은 7,7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0% 이상을 점유하여 세계 1위임.

국제관계

- UN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이후 현재까지 예멘에서 5만 7,000명 이상이 폭격과 교전으로 사망하고 4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콜레라 창궐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GCC 연합군은 Houthi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며 이의 차단을 명분으로 2017년 11월 6일 예멘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봉쇄,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된 바 있음.²³⁾
- UN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Mark Lowcock 사무차장은 12월 4일 UN본부에서 개최된 '2019년 세계 인도주의 활동 개요' 행사에서의 발표를 통해, 예멘 내전이 계속될 경우 2019년에는 2,400만 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에 의지해 연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Lowcock 사무차장은 2018년 11월 말 현재 800만 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전적으로 UN 구호식량에 의지하여 연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9년에는 그 숫자가 1,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현재 33세의 젊은이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경험 부족, 충동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예멘 내전에의 과도한 개입을 단행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국제적 평판에 명백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적으로도 내전 개입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2018년 예산총액의 21.5% 배정)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가중,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대한 Houthi 반군의 미사일 공격 보복 등으로 인해 내전 개입의 부작용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음.

예멘 내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추진에 대해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강한 거부 반응

- 이처럼 내전으로 인한 예멘의 인도적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자, 국제사회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예멘 내전의 종식을 위한 개입에 나서고 있음.
- 특히 미국은 Kashoggi 살해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는 등 위기에 몰리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해 예멘 내전의 조속한 종식과 대 카타르 단교 및 경제봉쇄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2월 6일 스웨덴에서 예멘 내전의 종식을 위한 예멘 정부와 Houthi 반군 간의 평화회담이 UN의 중재로 개최되어 12월 13일 교전이 가장 치열한 남부 Hodeidah 주에서의 휴전 및 3주일 내 동시 철군에 합의하였으며, 12월 18일 0시 휴전이 시작되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Houthi 반군이 요구한 부상자의 국외 후송, 수감자 교환 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예멘 내전의 평화협상을 지지한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내전 개입의 대내외적인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예멘 내전의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자신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여기며, 평화협상에의 동참을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여 이에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예멘 내전이 자신이 지원하는 정부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Houthi 반군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끝나 권력 분점이나 예멘의 영토 분할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란의 영향력을 예멘에서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보아 평화회담에 반대하고 있음.

23) UN의 거듭된 요구로 예멘의 수도 Sanaa의 공항 및 Hodeidah 항구와 Salef 항구에 대한 봉쇄는 2017년 11월 24일 해제되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태도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 능력 및 태도 양호

- 2018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과 D.S.R은 각각 10%대 초반과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리스크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 능력 및 태도가 여전히 양호함.
- 다만,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동국 총외채규모의 약 2.4배에 달하는 5,601.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최근 수년 간 감소 추세를 보였음.
- 연말 외환보유액 추이(억 달러) : 6,039.9('15) → 5,260.6('16) → 4,866.3('17) → 5,061.4('18e)
- 연말 외환보유액/총외채잔액 : 7.6배('15) → 3.9배('16) → 2.4배('17) → 2.4배('18e)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18.01)	2등급 (2017.01)
S & P	A (2016.02)	A+ (2015.10)
Moody's	A1 (2016.10)	A1 (2016.05)
Fitch	A+ (2017.03)	AA- (2016.09)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16~17년 저유가로 인한 거시경제지표 악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2014년 이후 저유가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6~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S&P : AA-(2014.6월) → A+(2015.10월) → A-(2016.2월)
- Moody's : Aa3(2016.3월) → A1(2016.5/10월)
- Fitch : AA(2015.8월) → AA-(2016.4월) → A+(2017.3월)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말 기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6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부국으로,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의 영향으로 2017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감산 합의 연장 등의 요인으로 2%대의 플러스(+) 성장 회복 및 재정수지 적자 개선이 추정됨.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총외채잔액의 2.4배 및 단기외채잔액의 9.8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D.S.R.도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4월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위한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이의 실현을 위해 동년 6월 국가개혁프로그램(NTP 2020) 및 12월 재정균형프로그램(FBP 2020)을 발표하고, 2017년 4월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그러나 현재 사실상의 국왕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과격한 정치적 숙청으로 왕실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역내 숙적인 이란을 겨냥한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물론 역내에서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 특히 지난 10월 2일 반정부 언론인 Jamal Kashoggi의 살해를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됨.